

국내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에 관한 연구

김 미 영[†] · 한 명 숙

서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Sportism in Domestic Fashion

Mi-Young Kim[†] and Myung-Sook Han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okye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3. 7. 31. 접수: 2003. 9. 13.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to review, in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e main causes for the sportism that prevails in modern fashion, and to analyze the typical expressions in the domestic fashion. Many factors attribute to the advent of sportism such as rapid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s toward sports, increase in leisure time and abundant opportunities, new fashion materials resulting from new technologies, emerging youth culture and increasing preference for such culture, and the postmodernism. With this background, sportism, which has been appearing in the domestic fashion, falls into 5 categories as follows based on the type of its expression. "Urban Street Sportism" is affected by the new sports culture of urban young people, which is characterized such that body line is disregarded with over-sized garment in layered style without considering T.P.O. concept. "Romantic Sportism" applies colors, fabrics and details of romantic images to sporty items, or culminates the feminine and elegant sportism by using the sporty fabrics and details along with romantic items. "Vintage Sportism" is characterized by its well-refined, high quality expression of naturally worn for long time, which is affected by the post-modernism. "Urban Utility Sportism," which is developed with such design factors as fabrics, styles, details and colors with emphasis on their utility and functionality, explicitly accommodates the changed modern life styles particularly in urban areas. Lastly, the military image, which was developed during the Iraq War along with simultaneous anti-war activities, and the peace messages, which deliver the mankind's hope for the world peace and social wellness, formulate the "Military Sportism."

Key words: military sportism(밀리터리 스포티즘), romantic sportism(로맨틱 스포티즘), urban street sportism(어번 스트리트스포츠), urban utility sportism(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 vintage sportism(빈티지 스포티즘).

I. 서론

스포츠는 정신과 육체의 조화 속에서 자기발견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체력단련과 건강의 수단이며, 개인의 범위를 넘어 참여와 경쟁을 통해 공동체적인

[†] 교신저자 E-mail : kmyfreesia@yahoo.co.kr

일체감과 환희를 갖게 해주는 유희이다¹⁾. 그러나 19세기말 근대사회로 이전되면서 부의 확장, 여가시간의 증가, 젊음 지향 등에 힘입어 스포츠의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스포츠는 정치, 경제, 예술, 영화, TV, 광고, 디자인 등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세기 이래 지금까지 패션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²⁾. 패션으로서의 스포츠, 쇼 비즈니스로서의 스포츠, 신체의 아름다움으로서의 스포츠, 건강으로서의 스포츠, 새로운 가치형성의 원천으로서의 스포츠, 사업으로서의 스포츠는 현 시대의 가장 근원적인 문화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한 여가 활용의 수단이나 취미가 아니라 사회적 트렌드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며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모든 문화영역에서 나타나는 스포츠의 영향은 패션에서 더욱 두드러져 스포츠활동을 돕기 위해 착용되었던 스포츠웨어가 일상복화되었고, 그것은 기능성과 편의성을 갖춘 의류의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스포츠웨어의 디테일이나 이미지를 도입한 일상복의 등장 등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해외 브랜드는 물론 국내 패션시장에도 기존 브랜드의 시즌기획에서부터 신규브랜드의 런칭컨셉까지 “스포츠”란 단어에 관심을 두고 주요한 테마로 접근하고 있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스포츠와 관련된 복식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스포츠웨어 디자인이나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³⁾, 스포츠웨어의 발생과 변천에 대한 사적 연구⁴⁾, 그리고 해외 하이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 패션(sportive fashion)이나 스포츠 룩(sports look)에 대한 연구⁵⁾ 등이 있어왔다. 그러나 국내 패션시장에서

의 스포티즘(sportism)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스포티즘이 최강의 트렌드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스포티즘의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패션시장에서 스포티즘의 표현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웨어로부터 발생하여 2000년 이후 현대패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스포티즘 현상이 패션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패션시장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표현유형을 분석하여, 남성적이고 기능성 위주의 스포츠웨어의 느낌에서 벗어나 때로는 로맨틱시즘과 결합하여 로맨틱하고 여성스럽게, 때로는 기능주의와 결합하여 도회적이며 실용적으로 표현되는 뉴 밀레니엄의 스포티즘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첫째, 스포티즘의 형성요인을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였고, 둘째, 국내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표현유형을 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왔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내용분석방법을 병용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시각적 자료는 패션전문잡지인 Fashionbiz와 Fashion Gio에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게재된 국내 브랜드의 광고사진 및 국내 컬렉션 사진, 브랜드 카탈로그, 인터넷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시기를 2000년 이후로 설정한 이유는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국내 패션계에 가장 강력한 특징으로 스포티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II. 스포티즘의 개념과 형성배경

1. 스포티즘의 개념

- 1) 김선희, “엘리트 스포티즘에 대한 휴머니즘적 비판”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1.
- 2)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p. 113.
- 3) 이승무, “스키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이효진, “우리나라 남성 골프웨어에 나타난 패션 경향 분석,” *복식문화연구* 10권 6호 (2002), pp. 148-162.
임은실, “국내 액티브 스포츠웨어 신소재 동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 이영민,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정재희, “20세기 여성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5) 정정미,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지현,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 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패션에서 스포츠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스포츠웨어이다. 스포츠웨어는 19세기부터 골프, 수영, 테니스, 자전거 타기, 스케이트, 요트 타기, 사냥 등의 스포츠가 유행하면서 등장했는데,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착용하는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와 1920년대에 스포츠 관람을 위해 디자인된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spectator sportswear)로 구분되었다⁶⁾. 점차 스포츠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스포츠웨어의 수요가 증가되고 그에 대한 개념도 확장되어 1960년대 말 이후 미국인들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그것은 캐주얼웨어(casual wear)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이 패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는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과 스포츠 룩이 있다. 스포티브 룩은 1963년 F/W 파리 콜렉션에서 사용된 용어로 방한복 형태의 스타일을 칭하는 말이었다⁷⁾, 작업복, 액티브 스포츠웨어 등 실용적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의복의 형태나 감각을 살린 디자인이 정장에 활용된 것으로 실루엣은 기능적 단순함을 추구하고 단추나 포켓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⁸⁾. 1990년대 이후에는 스포티브 룩이란 일상복이나 타운웨어(town wear) 등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복에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형태, 소재, 디테일,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 요소를 외형적 특징으로 하며, 특히 디자이너의 감성으로 재해석되어 트렌드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한 의복을 의미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디자이너 카스텔바작(Castelbajac)이 자신의 디자인 컨셉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스포츠 룩은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그대로 타운웨어화한 형태이다⁹⁾. 이는 스포티브 룩과는 구별되고 일반적으로 스키복, 조깅수트, 테니스복, 다운 베스트, 다운 재킷, 아노락(anorak) 등이 포함되며, 어슬래틱 스포

츠 룩(athletic sports look)이라고도 한다¹⁰⁾.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스포츠 캐주얼 룩(sports casual look)은 캐주얼웨어에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받아들인 스포티브 룩의 일종이다. 헬시 패션(healthy fashion)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¹¹⁾.

21세기의 패션 화두로 언급되는 스포티즘은 스포츠 룩에서 출발하였으나 과거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스포츠 경기복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경향이 아니라, 모든 기능적인 스포츠의 요소를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즉 기능적인 스포츠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느낌과 정신으로써 스포츠를 받아들이는 것 - 스포츠 감각 - 을 의미한다¹²⁾. 이러한 스포티즘의 영향으로 일상복과 스포츠웨어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각 개인의 감성과 개성에 따라 아이템과 착용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신소재의 사용, 기능적인 디테일과 악세서리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2. 패션에 스포티즘이 형성된 사회문화적 배경

1) 스포츠의 발달과 문화의 스포츠화

스포츠는 가장 대중적인 오락이며 문화이다. 스포츠는 19세기 이후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관람과 오락위주의 스포츠에서 참여와 건강위주의 스포츠로 변화해 왔고, 그 영역은 더욱 확대되어서 야외활동, 즉 캠핑, 하이킹과 같은 종류까지도 스포츠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록뮤직이 60-70년대의 대표적인 문화유형이었다면 스포츠는 확실히 90년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형이 되었다. 스포츠의 성장은 현 시대의 가장 근원적인 문화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성들의 새로운 욕망, 젊은 육체와 건

6) 매기 머레이, *패션세계입문*, 채금석 역 (서울: 경춘사, 1997), p. 207.

Mary Brooks Picken,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ls, 1973), p. 349.

7) 노혜은, "1960년대 High Fashion에 나타나는 Spotive Fashion," *장안논총* 12집 (1992), p. 850.

8)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9), pp. 301-392.

9) 노혜은, *op cit.*, p. 850.

10) 라사라개발연구원, *복식대사전* (서울: 라사라출판사, 1995), p. 735.

11) 조규화,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1995), p. 315.

12) "스포츠즘이 온다," *Fashionbiz*, 2000년 4월, p. 218.

DOT Fashion, "패션상식," [온라인 게시판]([2003년 6월 1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dotfs.com/w-sang6.htm>.

강에 대한 욕구, 패션, 레저와 풍요, TV의 혁명,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치, 세계화 등이 모든 사회경향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한 여가활동수단이나 오락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¹³⁾.

또한 스포츠는 전세계적 특성 즉 국경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범 세계적인 이벤트인 올림픽과 월드컵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선수를 한 자리로 불러모으며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를 열광케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는 대단히 규모가 크고 중요한 문화산업이기도 하다. 최근 연구에서 스포츠 비즈니스가 현재 미국에서 11번째로 거대한 산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하드웨어, 법률서비스보다 큰 규모이며 영화, TV, 교육서비스를 합친 것보다도 규모가 크다. 증가하는 여가, 소득의 증대, 대중매체의 발달로 스포츠 비즈니스는 명백히 상승하는 경제곡선을 타고 있는데, 이는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의 지위상승으로도 알 수 있다¹⁴⁾.

스포츠 스타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젊음과 활력은 대중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중들은 그들의 경기복이나 패션을 모방함으로써 그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스타들이 하이패션의 패션쇼에 등장하거나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들은 스포츠의 인기에 편승해 스포츠 스타를 캐릭터화 시킨 상품으로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젊은이들은 메니아 층을 형성하며 열광한다. 대표적인 것이 나이키(Nike)사의 조던 컬렉션으로 미국의 농구선수인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의 스타성을 사용하여 운동화는 물론 의류와 그의 백넘버인 23번을 이미지화 시켜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특정 선수뿐만 아니라 NFL, NBA, MLB 등의 미국 스포츠 단체를 캐릭터화 하고 있으며¹⁵⁾, 이러한 이미

지들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영감과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어 하이 패션에 스포츠웨어의 아이템으로 도입되거나 디자인 요소의 아이디어로 응용되어 스포티즘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2) 여가시간의 증가와 레저생활의 확산

미래학자들은 산업사회가 붕괴되면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신을 위한 여가를 갖게 되며 사회나 규율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유한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여가는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부의 확산과 여가시간 증대 등의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여가의 가치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여가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일과 함께 삶 속에 양립하는 특징이 되었다¹⁶⁾.

현대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의 여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가치체계가 인정되는 다원주의 하에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와해되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대중들이 공유하게 됨에 따라 여가의 대중화, 여가문화향유의 민주화,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여가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여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영역으로서 자기개발, 자아실현의 장으로 파악되고, 더구나 여가의 상업화 현상이 본격화되어 문화산업 즉 여가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¹⁷⁾.

한편 여가의 증가로 사람들은 옷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입을 수 있는 사회적 기회도 증가하였다. 즉 여가활동의 확산으로 개인생활에서 유행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가시간을 통한 패션과 여가활동은 대중의식,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여가활동과 패션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여가유형 자체가 직접적으로 의복스타일에 영향을

13) 문혜성, "스포츠가 살아야 패션이 산다," *Texjournal*, 1999년 8월, p. 152.

14) *Ibid.*, p. 154.

15) 정정미, *Op cit.*, pp. 40-41.

16) 윤혜진,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여가특성과 패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1.

17) *Ibid.*, pp. 29-30.

미쳐 스포츠 관람, 영화감상, 순회공연, 의식 등에 소비되었던 여가는 20세기 초반 점차 그 유형이 여행이나 스포츠, 쇼핑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유형으로 전환되면서 여가활동을 위한 기능적 스타일이 나타났다.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안에서 기능성의 추구는 패션에 있어서 형태와 소재 면에서 혁신을 가져왔고, 생활 속에 편안함, 쾌적함과 함께 기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스포츠웨어가 일상복으로 입혀지며, 일상복이 캐주얼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3) 뉴 테크놀로지와 신소재 개발

급속한 기술혁신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새 천년에 대한 기대 등은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고 그것은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테크놀로지는 액티브 스포츠용품을 신적 쾌적감을 증진시키고 신체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활동성을 위해서 인체공학적인 유기적 형태의 디자인으로 개발되는데 기여했다. 특히 패션에서는 최첨단으로 인식되는 혁신의 상당부분이 직물 기술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신소재는 스포츠웨어 회사들에 의해 개발되었다¹⁸⁾.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스트레치사와 스판덱스가 개발되었고, 1970년대 방수, 방풍소재가 개발되면서 이 소재들은 수영복과 스키복에 사용되었으며, 다른 스포츠웨어의 형태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아웃도어 스포츠(outdoor sports)가 유행하자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고기능성 합성섬유가 개발되었다. 기능적이면서도 쾌적한 소재로서 습기가 차지 않는 투습방수 소재인 고어텍스(Gore-tex), 듀스포(Dewspo), 레스토(Resto), 마이크로 텍스(Micro-Tex), 컴퍼템프(Comfor

Temp) 등과, 속건성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oly Propylen), 네오프렌(neoprene), 종이보다 가볍고 필름보다 강한 극세섬유로 만들어진 타이백(tie-back) 등은 천연소재를 뛰어넘는 쾌적한 착용감을 보장하며, 액티브 스포츠웨어,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웨어¹⁹⁾(extreme sportswear)에 중요한 고기능성 소재로 자리잡고 있다²⁰⁾. 1990년 초반에는 건강과 환경소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원적외선 섬유(Bio Ceramic Endor Fiber) 및 자외선 차단섬유, 감온변색섬유, 향균방취 섬유 등이 개발되었으며²¹⁾, 이제까지 대부분의 기능성 소재는 합성섬유를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스포츠 울(Sport wool)'이라는 메리노 울 70%, 폴리에스테르 30%를 사용하여 부드럽으면서 땀의 흡수 및 발산을 빠르게 하고 급격한 기온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소재가 개발되었다²²⁾.

다기능 첨단소재들이 하이패션의 일상복 소재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캐주얼과 스포티즘이 패션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며, 기능성 소재는 신축성이 좋아 움직임이 편하고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아 인기를 끌고 있고, 원단을 얇게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해 옷의 태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휴고보스(Hugo Boss)는 트렌치코트와 레인코트를 위해서 고어텍스를 사용하였고, 아르마니(Armani)는 구김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부분에 라이크라를 텐 정장을 내놓았으며, 국내브랜들도 예외는 아니다²³⁾. 스포츠웨어에서 사용되던 하이테크 소재들이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스포티즘의 표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4) 청년문화의 대두와 젊음 지향

20세기 전반의 패션이 대체로 사회의 엘리트층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20세기 후반의 패션은 청년문화

18) 하지수,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2호 (2000), p. 18.

19) 극한 스포츠라는 의미를 지니며,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스포츠로 신체부상 및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갖가지 묘기를 펼치는 래지 스포츠를 의미한다.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이씨클 스텐트, 스포츠 클라이밍, 스카이서핑, 스노우보드, 번지점프, 모글스키 등이 대표적 종목이다. "Sportainment 시대'가 열렸다!" *Fashionbiz*, 2000년 4월, p. 134.

20) "뉴마켓 OUT DOOR를 주목하라," *섬유저널*, 1994년 8월, p. 104.

임은실, *Op cit.*, pp. 41-56.

21) 한국섬유공학회편, *인조섬유* (서울: 형설출판사, 1994), pp. 627-699.

22) "소재시장 '毛風' 열기 거세다," *Fashionbiz*, 2002년 6월, p. 282.

23) 김혜수, "첨단 기능성소재 일상복 파고 든다," *한국경제* [온라인한국경제신문] (2003년 4월 22일 [2003년 5월 1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hksearch.hankyung.com>.

와 기성복 산업이 옷 입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후반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청년으로 성장하고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 출현했는데, 기성세대에 의해 청년문화라고 불리웠다. 그 문화의 내용은 마약문화적 포스터와 장식품, 새로운 록계통의 음악이나 민속음악, 영화, 신문, 사이키델릭 조명이나 멀티미디어 예술, 유니섹스 패션의 등장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²⁴⁾. 이 청년문화가 1960년대 패션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더욱 심화되었다. 점차 확대되는 청년문화와 과학문명에 대항하는 자연주의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복형태를 요구했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생활 방식은 활동에 편안한 스포츠웨어의 수용을 가속화시켰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활동적인 스포츠 스타일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붐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스포츠 스타일은 스포츠가 자닌 젊은이의 활력과 도전정신을 연상시키고 젊음과 상통하는 면이 많아서 청년뿐 아니라 젊음을 지향하는 성인들에게도 널리 선호되었다²⁵⁾. 1990년대 중반에 익스트림 스포츠로 불리는 프리스타일 (free style) 스포츠가 청년문화로 시작하여 TV의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익스트림 스타일은 신발류와 의복에서 그 자체의 산업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이나 유럽의 10대들이 미국의 프리스타일을 즐기며 스타일을 따라 하는 등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스타일의 특징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패션이다²⁶⁾.

한편 현대인에게 신체는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며 부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자본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면서 신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능력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젊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이 시대의 기호는 젊음 지향의 태도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중장년층의 스포츠참여도가 높아지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며, 젊어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 더구나 패션의 에이지리스(ageless)현상은 패션을 연령에 의해 읽어주는 일없이 소비자 자신의 생활, 취미, 기호, 기분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나이답게 차려 입어야 한다는 기존의 착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패션의 젊음 지향을 부추키고 있다. 현대의 많은 복식들은 정숙함과 성숙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젊음과 생동감 그 자체를 강조하여 디자인한다고 할 수 있다.

5)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정보화 시대, 후기 산업사회, 대중 소비사회로 불리는 현대에 와서는 탈획일화, 탈규격화, 개성추구의 경향 등으로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는 20세기 후반의 방대한 지적, 문화적 움직임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1970년대 이후 문학, 건축, 무용, 회화, 영화, 패션 등 다양한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은 좁은 의미에서 20세기 중엽 이후 문학과 예술에 나타난 새로운 사조나 경향을 기술하는 개념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20세기 후반을 특징짓는 일종의 시대정신이며 세계관²⁸⁾으로 대중문화현상에까지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역사성, 다원성, 절충성으로 요약되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간의 경계, 장르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장르나 형식간의 절충과 다원성을 지향하는 것으로²⁹⁾, 이분법적인 사고의 해체를 통한 비주류 문화의 주류화가 이루어지고, 성(sexuality)이 부각되며, 절충주의에 입각해서 이질적인 것들의 조화를 시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적인 요소와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과 절충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의 역사나 각 지역 고유문화의 회고나 재현이 아닌 해체와 융합 또는 절충에 의하여 혼성모방(pastiche)

24) 허버트 J. 겐즈,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강현두 역 (서울: 나남출판사, 1998), pp. 136-137.

25) 질레스 리포베스키, *패션제국*, 이득재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9), p. 170.

26) 임은혁,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복식* 53권 2호 (2003), p. 74.

27)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서울: 민음사, 1992), p. 27.

28) *Ibid.*, p. 59.

29) 찰스 젠크스, *포스트모더니즘*, 청람번역팀 역 (서울: 청람, 1995), p. 152.

된 형태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표현되었다³⁰⁾. 따라서 대중과 대중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소외 받아왔던 하위문화(청년문화, 거리문화, 흑인문화 등)가 수용되어 주류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주변의 성으로 인식되어왔던 여성의 해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면서 페미니즘이 형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패션에 표현된 역사성은 복고적 경향으로 나타나면서 멀리는 고대 로마, 그리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로부터 가까이는 1960년대의 미니스타일, 1970년대의 히피룩 등을 패러디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용을 보이고 있다³¹⁾. 절충성과 다원성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유니섹스(uni-sex) 모드, 정장(formal wear)과 비정장(informal wear)의 개념이 모호해진 것, T.P.O.의 개념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 다양한 의복스타일의 혼재, 다양한 소재의 혼용, 의복 아이템에 있어서의 용도의 변용과 전위, 동서양의 문화가 접목된 이국적 경향 등으로 나타났다³²⁾. 20세기 들어서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에 대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고정관념적, 여성적 이미지를 모두 배제한 남녀공용의 스타일로 인간 자체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남성과 여성의 특성 모두에 가치를 두고 이성의 요소들을 자유롭게 조화시킨 양성적인 패션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성적이거나 양성적인 요소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스포츠 스타일이며, 따라서 스포츠 스타일이 주목을 받고 스포티즘이 패션 트렌드로 부상하는데 일조하였다.

Ⅲ. 국내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유형분석

캐주얼 정장과 함께 세계 패션계에 불고 있는 스포티즘 경향은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하여 국내시장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작년 한해 영캐주얼 시장의 급부상을 가져왔으며, 전체 국내 패션시장에 트렌드의 중심코드로써 스포티즘을 표방하고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스포티즘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초로 스니커즈와 정장을 매치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점차 스포츠적인 요소를 조금씩 가미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패션에서의 스포티즘은 유행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의 표출로 나타나는데, 포멀웨어와 캐주얼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컬러나 소재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동서양의 감각이 교류되면서 옷에서 계절감이 사라지고, 양성적 패션이 나타나는 등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규칙이나 강박관념이 없어진다는 경계허물기의 모습을 보인다. 즉 스포티즘은 단순히 스포츠웨어의 기능적 요소나 디자인 요소를 피상적으로 도입, 응용한 일시적 패션현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생활방식과 미의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복식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뉴 밀레니엄의 스포티즘은 모든 기능적인 스포츠의 요소를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트렌드나 시즌 경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면서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향들과 조합되어 사용된다. 로맨틱리즘과 결합되기도 하고 다양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소재의 사용으로 럭셔리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거리의 스포츠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고 기능성을 추구하여 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향들과 결합되어 국내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을 어번 스트리트 스포티즘, 로맨틱 스포티즘, 빈티지 스포티즘,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 밀리터리 스포티즘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하지수와 정정미의 논문을 토대로 하여 국내패션에 표현된 스포티즘의 특징을 스타일, 색채, 소재, 디테일, 아이템, 착장형태 등의 외적 형식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1. 어번 스트리트 스포티즘 (Urban Street Sportism)

패션에서 보여지는 청년문화는 기성모드와는 다른 발상법으로 젊음과 생동감을 표출하며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청

30) 김후란, 은영자,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권 2호 (2003), p. 120.

31)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1996), p. 207, 211.

32) 김주애, 허정란, "복식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권 4호 (1998), pp. 226-227.

년문화가 그렇듯이 집단화되며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을 이룬다³³⁾. 스포츠 스타일이 나타나는 청년 문화집단은 스케이트보드와 거리농구 등 거리스포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과 브레이크 댄스, 힙합(Hip-Hop) 등 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도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의복의 형태를 지닌다³⁴⁾. 특히 1990년대 이후 청년문화에 새로운 스타일로 정착한 힙합은 70년대 중반 뉴욕의 흑인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춤, 패션 그리고 철학과 생각을 동반한 문화이다³⁵⁾. 그들은 배기진(baggy jean), 카고 팬츠(cargo pants), 헐렁한 버뮤다 팬츠(bermuda pants), 트랙 슈트, 후드 스웨츠 셔츠, XL 사이즈의 셔츠 등과 같은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작업복을 주로 착용하였고³⁶⁾, 이들의 스타일은 MTV, 위성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자이너들도 이러한 청년문화가 이끄는 스트리트 스타일에서 모티브를 구하거나 영감을 얻어 스포티즘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스트리트 스포티즘은 도시 청소년들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아이템이나 디자인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들이 의복을 통해 표현하는 의식과 의복에 대한 태도, 행위 등을 반영하는 스포티즘을 의미한다³⁷⁾. 이 스타일의 특징은³⁸⁾ T.P.O. 개념과 상관없이 오버사이즈의 의상을 레이어드 방식으로 착용함으로써 바디라인을 무시하며 남녀의 신체적 특성을 배제한 남녀공용의 중성적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과 액티브 스포츠웨어나 스포츠팀의 유니폼을 추종하는 것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백넘버, 대학이나 프로 스포츠팀의 로고와 이름, 스포츠웨어의 브랜드라벨 등이 외부에 크게 프린트된 의상들을 착용하며 옷의 착용방법이나 형태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착용형태를 보여준다. 색상은 모노크롬(monochrome)계 블루, 레드, 그레이계열의 옐로우, 오렌지, 올리브 그린, 카키 등 다양하게 사용

되며, 소재는 데님과 가죽, 면혼방, 활동성 있는 저지류와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다. 특히 나일론 소재가 강세를 보이는데 코튼보다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오버사이즈의 셔츠와 넓은 배기팬츠를 입고 있는 랩퍼들의 전형적인 힙합스타일을 보여주며,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하키 유니폼과 트레이닝복에서 형태를 따온 스포츠 캐주얼웨어이다. 〈그림 4〉는 장광효가 '03 F/W 서울컬렉션에서 아디다스의 삼색 스트라이프를 사용하여 어번 스트리트 스포티즘을 표현한 것이다. 소매대신에 아디다스의 스트라이프를 사용한 레드와 부르종에, 옆술기에 레드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화이트 팬츠와 스니커즈를 코디했는데, 강렬한 색상 대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재는 코튼저지로 매우 활동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

2. 로맨틱 스포티즘 (Romantic Sportism)

뉴 밀레니엄의 스포티시즘은 모든 기능적인 스포츠의 요소를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트렌드나 시즌 경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경향들과 조합되어 사용된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과 절충성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상반되고 이질적인 것들의 부조화로 어색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제시되면서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요소가 스포츠이미지와 결합된 로맨틱 스포티즘이 출현하고 있다.

로맨틱 스포티즘은 로맨틱 이미지의 색상과 소재, 디테일을 스포티한 아이템에 사용하여 표현하거나 스포티한 소재와 디테일을 사용하여 로맨틱한 무드의 아이템을 완성한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바디라인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살려주는 슬림하고 타이트한 형태이며, 화이트, 블랙, 그레이 등의 무채색이 기본 색상으로 아이보리, 핑크, 퍼플, 레드, 옐로우, 피취 등과 같은 감미롭고 여성스러운 색상이 함께 사용된

33) 정정미, *Op cit.*, p. 33.

34) Ted Polhemus,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1994), p. 86.

35) 김현숙, 최선형, "Y세대의 힙합패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9/10호 (2002), p. 23.

36) 이지현, 정은숙, "힙합의 발전에 따른 힙합패션의 발생과 변천," *복식* 46권 (1999), p. 11.

37) 하지수, *Op cit.*, p. 22.

38) 임은안, 채금석, "현대 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9/10호 (2002), p. 18.



〈그림 1〉 Fashionbiz, 2002. 4.



〈그림 2〉 Fashionbiz, 2001. 5.



〈그림 3〉 Fashionbiz, 2003. 6.

다. 소재는 벨벳, 레이온, 실크, 조오켓, 타프타, 새틴 외에 시폰, 저지 같은 드레이프성이 강하면서 얇고 부드러운 소재와 부드럽고 비치는 소재인 울, 레이스, 오간자 등이 사용되면서 로맨틱 이미지를 나타내고있다. 디테일 면에서는 러플과 프릴, 셔링, 플레어 등이 주를 이루었고 프릴은 목선, 어깨, 술기, 소매뿐 아니라 블라우스, 재킷, 티셔츠, 스커트, 원피스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림 5〉와 〈그림 6〉은 프린트한 시폰을 스트링으로 셔링을 잡아서 전혀 이질적인 소재와 매치시키고 있는데, 〈그림 5〉는 원피스의 가슴부분에 가죽을 대고 나머지 부분을 시폰으로 패치워크해서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림 6〉은 셔링을 잡은 시폰을 저지와 결합시키고 옆선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트레이닝 팬츠와 코디시켜 로맨틱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철우는 '03 S/S 서울 컬렉션에서 가슴부분에 프릴로 장식한 부스티에에 흰색의 숏팬츠와 흰색의 파이핑으로 처리된 후드 달린 레드 컬러의 재킷으로 귀엽고 사랑스런 이미지를 표현했다(그림 7). 성글게 짜여진 니트는 내추럴한 느낌과 함께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데, 〈그림 8〉은 속살이 비치는 니트 가디건에 레이저컷으로 구멍을 뚫은 아일렛(eyelet)팬츠로 섹시한 로맨틱 스포티즘을 보여준다.

3. 빈티지 스포티즘 (Vintage Sportism)



〈그림 4〉 장광효 (03 F/W Seoul Collection) 〈그림 5〉 이지선 (03 F/W Seoul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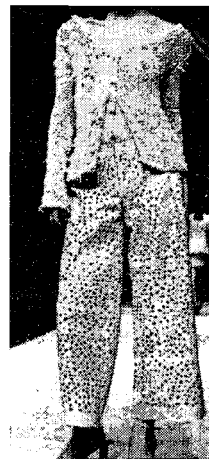
빈티지는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주의이며, 낡은 것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실용감각, 최소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시간의 경과로 해체되고 파괴된 것이 새로운 창조의 개념으로 추가되면서 패션에 빈티지 이미지가 등장하였다.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주테마



〈그림 6〉 이영선
(03 F/W Seoul Collection)



〈그림 7〉 이철우
(03 S/S Seoul Collection)



〈그림 8〉 한혜자
(03 F/W SFAA Collection)



〈그림 9〉 Fashionbiz,
2002. 10.

로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젊음을 지향하는 상반된 스포츠의 이미지와 결합되었다. 서로 다른 패션코드를 서로 뒤섞고 또 함께 표현함으로써 형식보다는 멋과 편안함, 즐거움을 추구하고, 전통적인 권위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빈티지 스포티즘은 자연스럽게 낡은 듯한 복고적인 느낌을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기능적인 스타일을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소재의 워싱가공과 소재의 손상을 통해서 또는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을 통해서 빈티지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블루증, 벨보텀 팬츠, 페이즐리 문양의 블라우스, 플리츠 스커트, 파이핑, 컬러 블로킹, 자수, 어플리케이션의 패치워크, 번진듯한 핸드 다이(hand-die) 등의 아이템과 디테일을 사용하였고, 색상은 블랙에 가까운 다크 블루, 깊은 톤의 베이지, 카멜, 브라운, 그린계열에 머스타드, 로열 블루, 레드, 퍼플, 비비드 그린 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빈티지 스포티즘은 특히 데님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데님으로 된 상의와 하의의 밑단이나 트임부분의 울을 풀거나 여러 조각으로 절개된 데님을 올이 풀린 상태로 연결하기도 하고 진팬츠를 뜯어내어 신체의 부분들이 보이도록 형태를 해체함으로써 오랜 세월이 경과된 것과 같은 낡은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그림 9).

이영선은 '03 F/W 서울컬렉션에서 브라운과 블

루 컬러가 적절히 믹스되어 생긴 낡고 바랜 듯한 무늬의 재킷과 미니스커트를, 워싱 데님에 자수와 레이스로 장식한 부츠와 함께 연출하여 훌륭한 빈티지 스포티즘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0). 〈그림 11〉은 머스타드와 브라운 컬러의 페이즐리 무늬를 남성 캐주얼 수트에 사용하여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페이즐리는 빈티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문양이지만 남성복에서는 넥타이나 머플러, 파자마 등에 주로 사용되고 수트에서는 보기 힘든 것에도 불구하고 박향치는 아디다스 스니커즈와 함께 빈티지 스포티즘을 완성시켰다. 빈티지 스포티즘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림 12〉는 마치 오래된 사진에서 여류비행사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가죽과 모피(칼라부분)로 트리밍 처리한 패딩 사파리재킷에 모자와 검은색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베이지와 크림색의 기모직물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빈티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4.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 (Urban Utility Sport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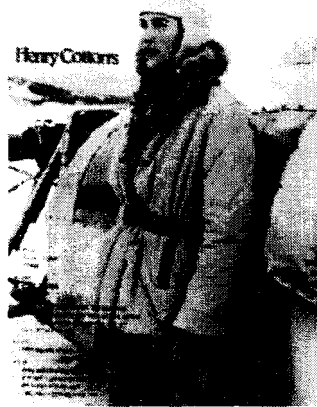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더불어 남성패션의 주도 세력으로 신소비계층인 뉴서티(new thirties)가 출현하고 벤처기업의 열풍에 따라 기업의 자율 캐주얼복장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격식을 갖춘 옷보다 on/off-time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스타일의 남성복 선호가 높아졌다. 이러한 경



〈그림 10〉 이영선
(03 F/W Seoul Collection)



〈그림 11〉 박향치
(03 S/S SFAA Collection)



〈그림 12〉 Fashionbiz, 2001. 11.

향은 주 5일 근무의 실시 등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남성복뿐 아니라 여성 커리어 브랜드에서도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은 정작 스포츠를 즐기지는 않으면서도 입음으로써 젊은 감각을 살리고 대리만족할 수 있는 연령대까지 착용되는 스타일이며, 국내의 직장 남성들의 드레스 코드가 점차 정장에서 캐주얼웨어로 바뀌는 상황에서 앞

으로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시장으로 예견되고 있다.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요소들을 도시인들이 캐주얼웨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도회적인 세련미와 실용적인 목적을 갖춘 새로운 옷차림으로의 변화가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의 개념이다. 따라서 패션성과 기능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감각적인 코디네이션과 디테일이 실루엣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칼라와 솔기선을 따라 스티치를 넣고 사파리 스타일의 아웃포켓, 드로스트링(draw string), 지퍼, 벨크로 여밈, 히든 플라켓(hidden placket), 상의 밑단을 밴드로 디자인하는 등 기능성은 물론 장식성도 중요한 요소이다. 소재는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 직물, 팽택감이 있는 테크니컬 소재, 기능성을 강조한 고어텍스, 플라 폴리스, 타이백 등 액티브 스포츠웨어에서 사용되는 직물들이 코튼이나 울과 함께 사용되었다.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은 기능적인 신소재의 개발로 더욱 실용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것은 바디백(body bag)이나 스니커즈와 같은 실용적인 액세서리로 인해 완성된다. 색상은 블루, 베이지, 그린, 카키의 중간톤에 무채색을 배합하고 형광색을 가미하여 가볍고 액티브한 이미지 외에 절제된 심플함으로 어필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주도하면서 기존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캐주얼한 감각을 덧붙여서 새로운 스타일을 전개하고 있다.

집업수트(zip-up suit)³⁹⁾는 대표적인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의 아이템이다. 지퍼여밈이 단추여밈보다 기능적이며 짙어 보이며, 거기에다 미니스커트와 비비드 컬러의 스트라이프를 첨가하면 더욱 그렇다(그림 13, 14). 장광효는 직장 남성들을 위한 복장으로 〈그림 15〉와 같은 부르종 재킷에 통이 넓은 면바지를 제안하였고, 김수현은 흰색 드레스 셔츠와 캐주얼 팬츠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메쉬소재의 탑을 레이어드하여 개성적인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의 착장형태를 보여주었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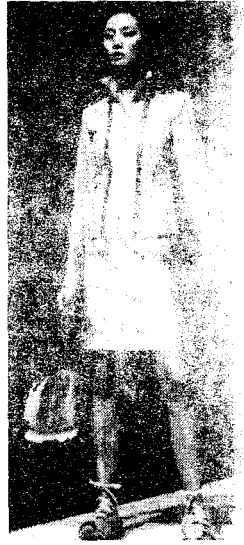
5. 밀리터리 스포티즘 (Military Sportism)

패션은 그 시대의 가치관, 사회환경, 문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매개체이며, 특히 사회적인 환경에

39) 앞여밈이 단추가 아니라 지퍼로 여는 스타일의 재킷.



〈그림 13〉 박윤수
(03 S/S SFAA Collection)



〈그림 14〉 손정완
(03 S/S SFAA Collection)



〈그림 15〉 장광호
(01 F/W Seoul Collection)



〈그림 16〉 김수현
(03 S/S Seoul Collection)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패션 트렌드에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그 요인들 가운데 전쟁이나 혁명 같은 정치적인 사건들은 절대적이다. 2003년 초 전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

던 미국·이라크 전쟁과 이에 따른 반전시위 등을 테마로 발전된 밀리터리 이미지와 세계평화와 사회안정을 염원하는 희망적 메시지가 밀리터리 스포티즘을 형성하였다.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은 군복의 스타일과 부분적인 디테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낸 가능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로 전쟁이라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어 등장하는 패션테마이다⁴⁰⁾.

밀리터리 룩이 출현하면서 카모플라주(camouflage) 문양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 문양은 밀리터리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카키에서 브라운에 이르는 내츨럴 컬러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2003년에 나타난 카모플라주는 전형적인 색상에서 벗어나 여성적이며 다양한 색상의 조합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블루톤이나 레드톤을 사용해서 새로움을 더해주고 있고 그 문양을 사용하는 아이템도 윈피스(그림 6에 사용된 프린트), 숏팬츠, 블라우스, 스커트, 점퍼, 수영복, 모자, 가방 등 거의 모든 패션 아이템으로 확대되고 있다.

뉴 밀레니엄의 밀리터리 스포티즘은 전쟁의 포화를 연상시키는 과격함보다는 스포티하면서 시크한 매력이 드러나도록 표현되었다. 카모플라주 문양의 사용, 트랜치 코트, 러닝셔츠라 불리는 슬리브리스 폴오버, 커다란 아웃포켓이 달린 군용 재킷과 사파리 재킷, 점퍼, 배낭, 더블 백, 카고팬츠,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의 고글, 군용 부츠와 모자, 벨트, 에폴레트(epaulette), 엠블렘(emblem) 등 밀리터리 룩에서 유래된 디테일과 아이템들은 이제 사막이나 정글이 아닌 도시의 거리를 겨냥하여 도회적으로 표현되는 아이템들이 되었다.

국내 남성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스포티즘은 형태, 색상, 디테일, 악세서리 등에서 전형적인 밀리터리 룩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지 기능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캐주얼해 보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제안되고 있다(그림 17, 18,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는 아웃포켓이 있는 카고 팬츠, 사파리 재킷, 러닝셔츠, 벨트 등을 사용하여 여성복에 나타난 밀리터리 스포티즘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복과

40) 윤혜숙, "military look," *Fashion Gio*, 2003년 5월, p. 55.



〈그림 17〉 한승수
(03/04 F/W
Seoul Collection Week)



〈그림 18〉 우영미
(03/04 F/W
Seoul Collection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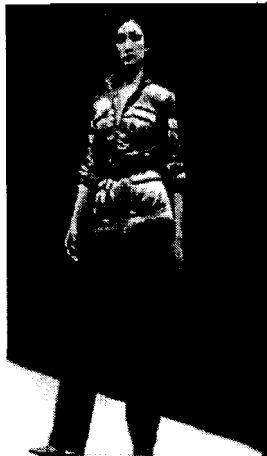
〈그림 21〉 설윤형
(03/04 F/W
Seoul Collection Week)



〈그림 22〉 조은미
(03 S/S
SFAA Collection)



〈그림 19〉 정욱준
(03/04 F/W
Seoul Collection Week)



〈그림 20〉 안혜영
(03/04 F/W
Seoul Collection Week)

차이점이 있다면 디테일은 밀리터리 스타일이지만 사용된 색상은 강렬하고 다양하다. 오렌지, 카키, 퍼플, 레드, 터쿠아 블루 등을 사용하여 보다 여성적이고 화려하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웨어로부터 발생하여 현대

패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스포티즘의 개념과 그 개념이 형성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패션시장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첫째, 스포티즘은 단순히 스포츠웨어의 기능적 요소나 디자인 요소를 피상적으로 도입, 응용한 일시적인 경향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사회환경, 생활방식과 미의식을 기반으로 느낌과 정신으로써 스포츠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스포티즘은 스포츠의 발달과 문화의 스포츠화, 여가시간의 증가와 레저생활의 확산, 뉴 테크놀로지와 신소재의 개발, 청년문화의 대두와 젊음 지향,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복식현상이다.

셋째, 국내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은 미적 특성에 따라 어번 스트리트 스포티즘, 로맨틱 스포티즘, 빈티지 스포티즘,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 밀리터리 스포티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번 스트리트 스포티즘은 도시 청년들의 새로운 거리의 스포츠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스타일의 특징은 T.P.O. 개념과 상관없이 오버사이즈의 의상을 레이어드 방식으로 착장함으로써 바디라인을 무시하고 남녀공용의 중성

적 스타일을 추구하며, 액티브 스포츠웨어나 스포츠팀의 유니폼을 추종하였다.

2. 로맨틱 스포티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과 절충성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상반되고 이질적인 것들의 부조화로 어색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제시되면서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요소가 스포츠이미지와 결합되어 출현하였다. 로맨틱 이미지의 색상과 소재, 디테일을 스포티한 아이템에 사용하거나 로맨틱한 무드의 아이템에 스포티한 소재와 디테일을 사용하여 탈이분법적인 크로스오버의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3. 빈티지 스포티즘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주며 마로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젊음을 지향하는 상반된 스포츠의 이미지와 결합되었으며, 자연스럽고 낡은 듯한 복고적인 느낌이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기능적인 스타일을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4. 어번 유틸리티 스포티즘은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요소들을 도시인들이 캐주얼웨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도회적인 세련미와 실용적인 목적을 갖춘 새로운 옷차림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었다. 실용성과 기능성을 위한 소재, 형태, 디테일, 색상 등의 디자인 요소에 패션성이 가미되어 표현되었다.
5. 밀리터리 스포티즘은 전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미국·아라크 전쟁과 이에따른 반전시위 등을 테마로 발전된 밀리터리 이미지와 세계평화와 사회안정을 염원하는 희망적 메시지로 형성되었다. 군복의 스타일과 부분적인 디테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이 패션성과 신소재로 인한 가능성을 가미하여 도회적이며 합리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상과 같이 스포티즘은 강력한 패션 트렌드로써 사용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 및 경향들과 결합되어 흥미로운 표현유형들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된다. 스포티즘은 이미 복식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문화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

으로 패션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전개될 스포티즘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켄즈, 허버트 J. (1998).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강현두 역. 서울: 나남출판사.

김선희 (1992). "엘리트 스포티즘에 대한 휴머니즘적 비판."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옥동 (1992).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서울: 민음사.

김주애, 허정란 (1998). "복식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권 4호.

김지현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 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 최선형 (2002). "Y세대의 힙합패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9/10호.

김후란, 은영자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권 2호.

노혜은 (1992). "1960년대 High Fashion에 나타나는 Spotive Fashion." *장안논총* 12집.

라사라교육개발원 (1995). *복식대사전*. 서울: 라사라출판사.

리포베스키, 질레스 (1999). *패션의 재국, 이득제* 역. 서울: 문예출판사.

머데이, 매기 (1997). *패션세계입문*, 채금석 역. 서울: 경춘사.

윤혜진 (1998).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여가특성과 패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무 (1987). "스키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민 (1993).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 정은숙 (1999). "힙합의 발전에 따른 힙합패션의 발생과 변천." *복식* 46권.

이효진 (2002). "우리나라 남성골프웨어에 나타난 패션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10권 6호.

임은실 (2002). "국내 액티브 스포츠웨어 신소재 동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안, 채금석 (2002). "현대 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9/10호.
- 임은혁 (2003).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복식* 53권 2호.
- 정삼호 (1996). *현대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 정재희 (1991). "20세기 여성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미 (1996).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젠크스, 찰스 (1995). *포스트모더니즘, 청람번역팀 역*. 서울: 청람.
- 조규화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 하지수 (2000).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록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2호.
- 한국섬유공학회편 (1994). *인조섬유*. 서울: 형설출판사.
- Benstock, Shari and Suzanne Ferriss (1994). *On Fashio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Cunningham, Patricia A. and Susan Voso Lab (1991). *Dress and Popular Culture. Bowling Green: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Popular Press*.
- Davis, Fred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m, Marilyn J. and Lois M. Gurel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Picken, Mary Brooks (1973).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ls.
- Pothemus, Ted (1994).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 Fashionbiz* (1994년 8월). "뉴마켓 OUT DOOR를 주목하라."
- Fashionbiz* (1999년 8월). "스포츠가 살아야 패션이 산다."
- Fashionbiz* (2000년 4월). "'Sportainment 시대'가 열렸다!"
- Fashionbiz* (2000년 4월). "스포티즘이 온다."
- Fashionbiz* (2001년 5월).
- Fashionbiz* (2001년 11월).
- Fashionbiz* (2002년 4월).
- Fashionbiz* (2002년 6월). "소재시장 '毛風' 열기 거세다."
- Fashionbiz* (2002년 10월).
- Fashion Gio* (2003년 5월). "military look"
- Fashionbiz* (2003년 6월).
- "첨단 기능성소재 일상복 파고 든다" (2003년 4월 22일 [2003년 5월 1일 검색]). *한국경제* [온라인한 국경제신문];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hksearch.hankyung.com>.
- "패션상식" ([2003년 6월 1일 검색]), [온라인 게시판];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dotfs.com/w-sang6.htm>.
- 02 F/W Seoul Collections, 03 F/W Seoul Collections, 03 S/S Seoul Collections, 03 S/S SFFA Collections ([2003년 7월 1일 검색]), [온라인 게시판];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fashionwide.com>.
- 2001, 2002, 2003 Womens Collections ([2003년 7월 1일 검색]), [온라인 게시판];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firstview.com>.